

고통스러운 시대에 프란치스칸 평화 이루기

정의, 평화, 환경 보존 위원회 활력자 Joe Makely, OFS 제공

교황 바오로 6세께서 “평화를 원하면, 정의를 위해 일하라.” 말씀하셨다. ([Day of Peace Message, 1972.](#))

*재속회 회헌*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평화는 정의의 산물이며 화해와 사랑의 결실이다.” (회헌 23조)

성 보나벤투라 에 따르면, “정의는 일그러진 것을 아름답게 만든다.” “그래서 정의는 평화로 향한 길인데, 이 평화는 마음의 평화, 사람들 간에 또 사람들 가운데에 있는 평화, 모든 하느님의 피조물 안에 있는 평화를 의미한다.” 라고 Murry Bodo, OFM는 말한다.¹

우리 프란치스칸회는 정의를 위해 “용감하고 주도적 행동”을 한 긴 역사를 지니고 있다(회칙 15). 하나의 중요한 예가 1960년대와 1970년 초기에 걸쳐 일어났던 AIU, or *Action for Interracial Understanding* (인종간의 이해 증진 운동) 이다. 이것은 집단적인 국가적 사도직 활동이었다. 모든 회원은 인권 운동에 참여하도록 권장 받았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며, 양쪽이 비폭력적이 되도록 도우라는 지시를 받았다.² 세미나와, 출판물, 교육을 위한 방대한 노력이 있었다. 많은 3회 회원들이 이 부르심에 응답했다. 그들은 시위와 다른 행동에 참여하여, 1963년 8월 워싱턴 DC에로의 행진에 동참하였는데, 거기에서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예언적인 꿈(이상)에 대한 설교를 들었다. 회원 모두가 AIU (인종간의 이해)나 그해의 킹 목사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것이 지도부가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사회와 교회를 위한 크나큰 도덕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기에, 회원들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부름을 받게 될 지도 모른다. 그런 부르심에 대답하는 것은 모두에게 고유한 도전이며, 응답은 기질과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우리는 기도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좀 더 넓은 이해안에서 그러하다.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그리스도 중심이 되고, 정의를 위한 평화롭고 비폭력적인 운동에 관상적인 프란치스칸 자신을 투신할 때, 우리의 노력은 기도가 된다. 가장 작은 행동이라도, 특히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봉사는 하느님이 기억하신다. 공공 집회를 조직하거나 그 집회에서 사인을 들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그 자리에 참여해서 숙소나 음식, 교통 수단으로 도우고, 혹은 기도하는 마음이 담긴 감사 카드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으로 도울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회칙에 있는 큰 약속을 실현하는 길이다. 비록 그것이 순교나 덜 심각한 희생을 막지는 못할지라도, 진정한 평화의 도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내적 평화를 가져다줄 수 있다.

질문 1. 공공적이고 도덕적인 결정의 때에 재속프란치스칸으로서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질문 2. 나의 사랑이 사회의 어두운 시기에 어떻게 아름다움과 진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질문 3. 우리는교도권의 가르침에 비추어 공공 정책을 어떻게 평가 할 수 있습니까?

도전: 회헌 44조 “신앙의 빛을 받고 교도권 문헌을 통해 교회와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적절한 입장을 취한다.” 에 기초를 둔 워크샵이나 형제회 양성을 주도해 보는 것을 생각해 보시오. 논쟁적인 공공 정책 (예를 들면, 대규모 추방)을 기술해 보시오.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서 주요 교황 문헌과 더불어 연대성, 보조성, 권리와 의무등등 과 같은 원칙들 을 열거해 보시오. 프란치스칸 적이고 가톨릭적이며 올바르다고 느껴지는 것을 하기 위한 것에 대한 성명을 만들어 보시오. 결과물뿐만 아니라 그 과정의 토론에도 가치를 두시오.

¹Murray Bodo, OFM in *Surrounded By Love: Seven Teachings from St Francis*, 2018, Franciscan Media, 54.

²Wicks, William, OFS, *A History of the SFO in the United States*, Vol. 2B, 2010, Smoky Valley Press.